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제조활동 1년만에 최저 기록...향후 수개월 나아질 듯
- Bloomberg: 미 우방국들, 트럼프 베네수엘라 공격에 신중한 반응
- WSJ: 미국인 집값 부담없는 중서부 지역 주목
- YahooFinance: 연준 Kashkari, “오일가격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베네수엘라 리스크 아직 없어”
- Bloomberg: 완만한 고용으로 작년 노동 시장이 마무리 될 듯

[미국 금융]

- Bloomberg: 마두로 축출 상관없이 미 증시 상승세

[자동차]

- Bloomberg: 미 중산층 구매 약세로 자동차 판매 하락세

[오일]

- CNNBusiness: 베네수엘라 변수에도 2026년, 코로나 이후 최저 휘발유 가격 전망
- WSJ: 마두로 축출 이후 유가 움직임 제한적
- WSJ: 미국의 마두로 체포 이후 Chevron 등 에너지주 급등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시장 변화 속에 IKEA, Amazon·Temu와 경쟁

[미국 경제]

Bloomberg: US Factory Malaise Continues as Gauge Drops to One-Year 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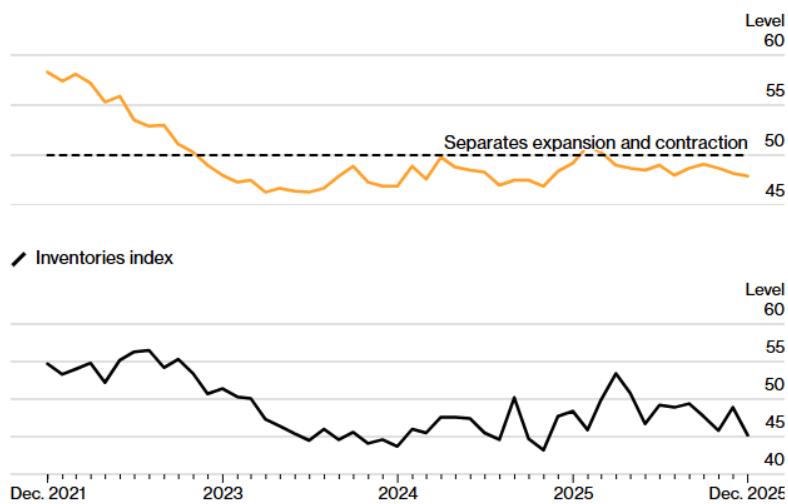
미 제조활동 1년만에 최저 기록... 향후 수개월 나아질 듯

- 미국의 12월 제조활동이 지난 2024년 이래 가장 크게 감소했다.
-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의 제조 지수에 따르면 12월에 47.9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48.2 였다.
- 50미만은 위축을 보이는 지수 인데 지난 10개월동안 그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하락은 지난 2024년 10월이래 이들의 자재 재고가 가장 빨리 감소하고 있는데 자재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수요 둔화로 인해 많은 회사들이 기존 재고에 의존하고 있다.
- 다소 긍정적인 면은 소비자용 재고가 지난 2022년 10월 이래 가장 빨리 줄어들고 있어 향후 수개월간 제조 주문과 생산을 강세일 수 있다는 것이다.

US Manufacturing Continued to Shrink at End of 2025

December decline reflected sharper pullback in inventories

✓ Purchasing managers index



Source: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Allies Offer Muted Response After Trump's Raid in Venezuela

미 우방국들, 트럼프 베네수엘라 공격에 신중한 반응

-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한 사태에 대해 미 우방국들은 외교, 대화, 안정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 이들 국가들의 반응은 중국과 같은 국가들의 날카로운 반응과 대조적이었는데 중국은 미국의 행동이 노골적인 무력 사용이자 주권 침해라고 비난했다.
- 우방국들의 신중한 반응은 최근 안보와 무역 관세에 대한 미국 의존과 중국과 대만, 북한을 둘러싼 잠재력인 갈등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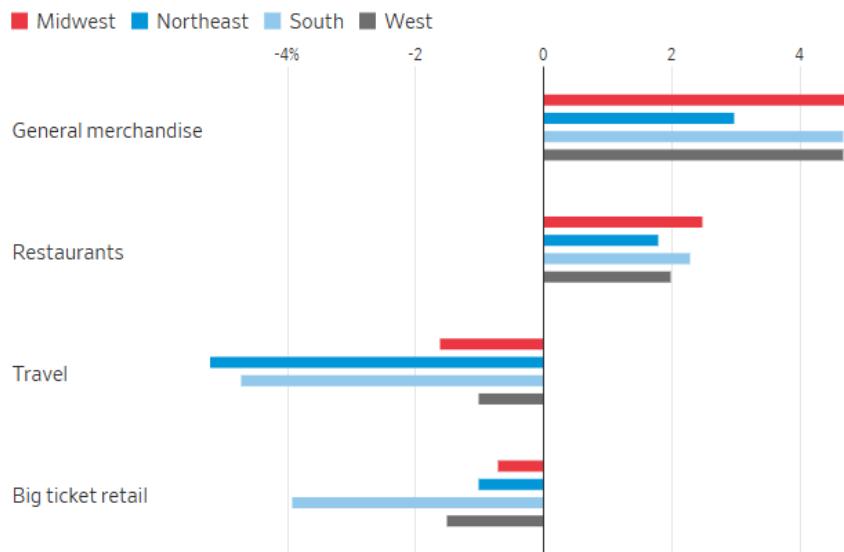
WSJ: Americans Are Looking to the Midwest to Find Affordability

미국인 집값 부담없는 중서부 지역 주목

- 중서부 지역의 중간 주택 가격은 31만9천4백달러로 11월 미 전역 중간 가격인 4만9천2백달러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Bank of America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서부 지역의 임금 성장이 작년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 또한 중서부 지역의 임대료 또한 미 평균 임대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Discretionary Spending

Credit and debit-card spending per household, change from a year earlier^a



^aThree-month average ending October 2025. Seasonally adjusted.

Source: Bank of America internal data

WSJ 기사

YahooFinance: Venezuela risk to US economy is via oil prices, but not seeing it yet, Fed's Kashkari says

연준 Kashkari, “오일가격에 따른 미국 경제에 대한 베네수엘라 리스크 아직 없어”

- 미네아폴리스 연준 총재인 Neel Kashkari는 오늘 월요일에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에 따른 미 경제의 주요 리스크는 오일가 상승으로 나타날수 있지만 아직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다”고 말했다.
- 그는 CNBC와의 기자회견에서 해당 리스크는 오일 가격을 통해서 주로 나타날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오일 같은 원자재 변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전세계에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 당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베네수엘라 침공 때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그는 “이러한 매커니즘이 미국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며 여파는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YahooFinance 기사

Bloomberg: Modest US Hiring to Cap a Sluggish Year for the Job Market

완만한 고용으로 작년 노동 시장이 마무리 될 듯

-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작년 12월의 미 일자리는 완만하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코노미스들의 전망치는 12월에 6만개의 일자리가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아마 12월 실업률은 12월에 4.5%로 지난 4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에 전체 일자리 증가 수자는 67만개로 2024년의 2백만 개 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 물론 고용 속도는 둔화 되었지만 광범위한 해고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연준은 인플레 완화의 추가 진전을 기다리고 있지만 올초에 금리 완화에는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융]

Bloomberg: US Stocks Rise as Traders Shrug Off Maduro Ouster
 마두로 축출 상관없이 미 증시 상승세

-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체포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에 대한 여전한 강세와 수요로 인해 미 달러는 월요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나스닥은 1% 가까이 상승중이며 마이크론 테크널러지와 인텔 같은 반도체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S&P 500도 0.5%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금값과 달러도 랠리를 보이고 있다. 금은 온스당 4천4백불을 상회하고 있으며 달러 또한 지난 11월 이래 가장 큰 강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 투자자들이 베네수엘라 사태의 파장을 지켜보면서 오일 가격은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다.

[자동차]

Bloomberg: US Auto Sales Poised to Slip as Middle-Class Buyers Retreat
 미 중산층 구매 약세로 자동차 판매 하락세

- 현재 기록적으로 거의 높은 신차 가격에 중산층 잠재 구매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 미 자동차 판매가 약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새로운 자동차 가격이 비싸 연 15만불 미만의 미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 관련 Cox의 전망에 따르면 이 같은 판매 하락 추세를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1천5백80만대 판매로 지난 2022년 이래 연간 단위로 첫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 한편 2010년에는 자동차 평균 가격이 3만달러가 채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거의 5만달러에 가깝다.

[오일]

CNNBusiness: Despite Venezuela, forecasters say 2026 will be the cheapest year for gas since Covid
 베네수엘라 변수에도 2026년, 코로나 이후 최저 휘발유 가격 전망

-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2026년은 미국에서 코로나19 이후 가장 휘발유 가격이 저렴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26년 미국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약 2.97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연평균 3달러를 밑도는 수준이다. 국제 유가

하락과 공급 여건 개선, 수요 증가 둔화로 휘발유 가격은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 베네수엘라 관련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지 에너지 인프라 여건상 단기적으로 미국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가계의 연료비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동 정세 악화나 OPEC 감산 등 지정학적 변수는 여전히 잠재적 리스크로 남아 있다.

CNNBusiness 기사

WSJ: How Oil Prices Are Moving After Maduro's Ouster

마두로 축출 이후 유가 움직임 제한적

- 국제유가는 2026년 초 배럴당 6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중동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글로벌 원유 공급 과잉 가능성이 더 큰 변수로 작용했다. 브렌트유는 약 60달러, 미국 WTI는 57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다.
- 브렌트유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18% 떨어져 2020년 이후 가장 큰 연간 하락세를 보였으며, 약세 흐름은 연초에도 지속되고 있다.
- OPEC+ 일부 국가의 생산 차질 가능성과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등 공급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과 비OPEC 산유국들의 생산 증가로 전체 공급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유가 하락 압력을 키웠다.
-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중동산 원유 가격이 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 심리에 부담을 준 점도 유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 결론적으로, 원유 시장은 지정학적 위험보다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 우려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유가는 60달러 안팎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WSJ 기사

WSJ: Chevron and Other Energy Stocks Jump After U.S. Captures

Venezuela's Maduro

미국의 마두로 체포 이후 Chevron 등 에너지주 급등

-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Chevron을 비롯한 미국에너지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낙후된 석유 인프라 재건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베네수엘라에 유일하게 진출해 있는 미국 대형 석유회사인 Chevron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 ConocoPhillips, ExxonMobil, SLB, Halliburton 등 관련 기업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반면 국제 유가는 베네수엘라의 생산 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인식 속에 큰 폭의 상승 없이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 시장은 단기 유가 충격보다는 장기적인 생산 회복 가능성과 지정학적 변화가 에너지 기업 실적에 미칠 영향에 더 주목하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IKEA Battles Amazon and Temu as Market Shifts Bring Pain

시장 변화 속에 IKEA, Amazon·Temu와 경쟁

- 세계 최대 가구 소매업체인 IKEA는 Amazon, Temu, Shein 등 저가·온라인 중심 플랫폼의 급성장과 소비자 구매 패턴 변화로 큰 압박을 받고 있다.
- 소비자들이 가격 경쟁력과 빠른 배송을 중시하면서 전통적인 대형 오프라인 매장 중심 모델의 한계가 부각됐고, 이에 대응해 IKEA는 가격 인하 전략을 단행했다.
- 그러나 원자재 비용 상승과 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2025 회계연도 Inter IKEA의 이익은 전년 대비 26% 감소했다. IKEA는 온라인 판매 강화, 배송 서비스 개선, 도심 및 소형 매장 확대 등 사업 구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유럽 지역 산림을 직접 인수하는 등 원가 관리에 도 나서고 있다.
- 다만 시장에서는 디지털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저가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Bloomberg 기사](#)

KOCHAM | 460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